



금속민족의

분쇄! 노동탄압
강화! 산별노조
완성! 주간연속2교대
쟁취! 현장권력
철폐! 비정규직

■ 발행인 : 의장 김 봉 윤 ■ 발행처 : 선전실(25-20호) ■ 게시기간 : 11월 26일까지 ■ 게시확인 : 사업부대표 정 창 봉

압도적 찬성 · 총파업 결의 박근혜 퇴진 · 노동개약 저지

이게 나라냐? 개판도 이런 개판은 없다

박근혜가 임명한 검찰조차도 박근혜를 범죄자로 단정 짓고 있다. 2번의 대국민 담화에서 거짓 말로 전국민을 속이려 하더니만 이제는 본인이 약속한 검찰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5%도 안되는 친박 떨거지를 비롯한 그 추종 세력들은 뭐 그렇게 잘못했나? 며 ‘배째라’ 식이다. 정말 어이가 없고 분통 터져 미칠 지경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고, 대학생들은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정몽구 회장 328억 헌납,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대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128억, 청년희망펀드에 200억을 갖다 바쳤다. 그리고 정몽구 회장은 박근혜와 독대 후 정유라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K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문지마 식 특혜성 납품 계약, 그리고 최순실 회사에 60억 광고를 몰아줬다. 지난 단체교섭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발표와 박근혜가 밀어 붙이는 노동 개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국민 95%의 절대적 지지 받는 총파업이다

대학생들도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다. 썩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이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전국 100만 촛불에 노동자가 총파업으로 화답해야 한다. 재벌은 돈 갖다 바치고 박근혜는 노동개약 밀어 붙이고..... 이런 개판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켜야 한다. 박근혜와 재벌들이 겁내는 것은 100만 촛불이 결코 아니다. 공장이 멈추는 총파업을 그들은 가장 겁내고 있다.
압도적 찬성으로 11월 30일(수) 총파업 성사시켜 노동자의 거대한 힘을 보여주자!